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1980년대 학생운동 세력은 2000년대 본격적으로 정치에 진출하여 386으로 불렸다. 386세력은 이들에 대한 기대가 컸기에 정치권 진입 과정에서 특혜를 받을 수 있었다. 정치권에 들어간 뒤에도 특별대우를 받아 원내에 쉽게 진출할 수 있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386세력은 586이 되었다. 그런데 이번 대선 과정에서 50대 또는 60대에 진입한 586 세력이 대중적 정치 지도자나 대통령으로 성장하지 못하면서 정치적 존재감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이들은 베이비붐 세대로 세대 인구수가 역대 어느 시기보다 많기에 세대적 지원도 클 수 있었다. 그래서 당시 386세력의 등장을 보면서 첫 등장부터 창대했으니 현재 586에서는 당연히 더욱더 창대하리라 전망했다. 그러나 그러한 전망은 사라지고 있다.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차기 대선후보 경선이 진행 중이던 각 당 어디에도 586 유력 대권주자는 없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2강을 형성하는 이낙연이나 이재명 모두 과거 학생운동권 386이 아니다. 국민의

386엔 왜 대선후보가 없는가?

힘 후보 중에서 원희룡 등이 있지만 윤석열·홍준표·유승민 등 유력 주자에 밀리고 있다. 이는 386세력이 대중적 정치인으로 성장하지 못했음을 보여 준다.

그렇지만 386세력이 민주당과 정부에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다. 송영길 당대표나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이 그러하다. 그런데 이들의 위치는 대중적 정치인으로서 개인적 성취라기보다는 민주당이 여당이 되면서 민주당 내 관계에서 주어지는 측면이 크다. 이는 달리 말해 386세력의 집단적 성취다.

김영삼·김대중은 이미 1970년대에 40대 기수론을 들고 나왔다. 61년생인 오바마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대통령을 하고 물러났다. 프랑크 마크롱 대통령은 1977년생이다. 이쯤 되면 궁금해진다. 왜 386세대에서 대중적 정치인 또는 국가 리더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에 대한 다양한 진단이나 원인 분석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들 386정치인들이 민심 또는 여론을 대하는 관점을 보면 그 원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를 대중관이라고 표현해도 좋다.

386세대들의 가장 큰 특징은 계몽적 대중관이다. 이들은 국민을 항상 가르치려 하고 계도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항상 대중보다 우월한 위치에 서 있다. 이렇게 되면 민심은 천심이 아니며, 민심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들은 대중을 주제로 존중하지 않고 홍보나 심하게 말하면 선전선동의 대상 즉 객체로 생각한다.

이러다 보니 민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거나

거스르고 때에 따라서는 전략적으로 바꾸려고 한다. 이런 반(反)대중적 대중관은 그들이 그렇게도 비판했던 대중을 통해 조차했던 권위주의 정권의 대중관과 다를 바가 없다.

386정치인에게는 국민보다는 과거 같이 학생운동을 해 온 정치적 결사체가 우선이다. 그리고 이 정치적 결사체를 기반으로 민주당 당권을 잡았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딱 거기까지다. 이번 대선에서는 후보조차 내지 못했다. 혹자는 당권 이후 대권이 586의 전략이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대중관이 바뀌지 않는 한, 5년이란 시간이 주어지지 686이 되는 이들에게 대권의 기회가 울지는 미지수다.

그런데 이러한 이들의 대중관은 현재 386 아래 세대로 대중운동은 고사하고 학생운동조차 경험이 없는 40대에도 그대로 계승된다. 오히려 더 심해지는 모습이다. 그래서 40대들도 당내 패권적 싸움에는 능하지만 대중적 정치인은 잘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40대는 세대 역할에서도 과거와 같은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대중관으로 인해 386세력과 40대에서 대중적 국가 지도자가 나오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것이다. 물론 이들 방식의 정치로 당내 패권이 앞으로 계속 잡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심과 민심의 불일치를 심화시켜 정치를 소모적이고 갈등적 대립으로 만들어 갈 가능성도 다분하다.

종교칼럼

기다리는 자가 누리는 만남의 기쁨



최현열
광주연합회 담임목사

대학교를 다닐 때 34번 버스를 타고 구 전남도청. 현재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라 부르는 곳에서 내려 걸어 다녔다. 어느 날 정류장에서 속소로 가기 위해 그 버스를 기다리는데 처음 보는 두 명의 사람이 다가와 "눈이 맑아 보인다." "도에 대하여 말씀 좀 나누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걸었다. 보통 때 같으면 몇 마디라도 주고받았을 텐데 그날은 피곤했는지 귀찮다는 듯 시선을 주지도 않고 계속 내가 타야 할 버스가 오는 방향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계속해서 말을 걸었고 대화의 연결 고리를 찾기 위해 "버스 기다리시나 봐요?" 을 버스는 오게 되어 있으니깐 말씀 좀 나누시죠."라고 이어 갔다. 나는 나도 모르게 "을 버스는 오겠지만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더 반가운 법입니다."라고 췌기를 박듯이 말했고 그들은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걸었다.

'어진 왕자'라는 책에 가슴 설레게 하는 대사가 있다.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할 거야!"라던 사막 여우의 감동적인 멘트. 옛 추억을 떠올

려 보면 광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하고 만나는 장소 중에 총장로 우체국 앞이라는 곳이 있다. 어떤 요일이든 낮이나 밤이나 매일매일 사람들은 그곳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고 그 앞으로 온다. 꽃을 들고 연인을 기다리던 어떤 젊은이와 돌이 수다를 떨며 아직 도착하지 않은 친구를 기다리는 소녀들의 미소, 그뿐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약속을 정하고 만남을 이루어 주었던 곳이 바로 그곳이다. 기다림에서 만남으로 이어지는 가슴 따뜻한 추억은 나를 미소 짓게 한다.

꼭 다시 데리러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던 한국대사관 소속 김일웅 참사관의 말을 믿고 이를 기다리던 아프가니스탄의 현지인 조력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 약속을 기다려야만 했던 이들의 심정 말이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수송 작전(작전명 미라클)은 은밀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어 391명을 무사히 구출하여 난민 아닌 특별공로자의 자격으로 우리나라에서 마련한 진전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임시로 지내고 있다. 모든 국민들에게 뿌듯함을 선사해 주었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진정한 첫 발을 내딛는 느낌이라 말할을 한다.

김참사관과 현지인 조력자가 만나는 장면을 보면 서로 끌어안는 눈물과 감격의 장면이 있다. 'KOREA'라고 쓴 종이를 들고 찾아다니는 한국군과 직원들 앞에서 있던 그 많은 군중들은 약속한 이들이 아니므로 나서지 않는다. 다만 한국과 관계가 있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린 사람들만이 그 표식을 보고 뒤통나눌 수 있었던

것이다. 울 것이면 오겠지, 하지만 기다리는 이에게는 그 만남이 미치도록 반가운 법이다. 약속한 그때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는 신앙이 구원 받은 자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

예전에는 놀이공원이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 자녀를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가끔 있었다. 대부분 아이를 혼자 두고 보호자가 다른 곳, 즉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거나 화장실에 다녀오는 경우에 발생한다. 그때 보호자는 아이에게 신신당부한다. 어디 가지 말고 여기에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다. 그런데 잠깐 동안이지만 아이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보이지 않는 보호자를 찾아 나서거나 비슷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호자로 착각하고 따라가게 된다. 그 자리에 없는 아이 때문에 보호자는 그 아이를 찾아 나서면서 길이 험갈리게 되고 만다. 잠깐 동안이어도 이 얼마나 끔찍한 경험이었는가.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다. 기다리는 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완전한 신뢰와 기다리는 자의 설렘이 있어야 한다. 삶의 두려움은 근심을 낳게 되고 근심은 갈망질망하며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신앙은 신뢰와 관계에 있다. 더디어도 기다릴 수 있는 깨달은 신뢰가 있기 때문이고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다는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가 오시리라 했으니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지금도 여전히 즐거움하기를 바란다.

냉철한 역사의식으로 미래를 열자

운 사건'이라는 뜻으로 일제에게 우리나라가 주권을 완전히 빼앗긴 사건을 말한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온갖 고통과 슬픔을 겪어야 했다.

지금 친일 수구니 반일이니 하는 일본과 관련된 각종 정치적 다툼이 우리 사회의 이슈로 등장하고 있지만, 실상 모든 문제의 계기가 되는 것이 경술국치인데도, 오늘날 어느 언론이나 정가에서 국치일을 기억하거나 언급하는 일 없이 지나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는 거대 담론이나 이슈를 둘러싸고 다양한 쟁론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 원초적 배경과 의미를 몰각한 채 단순화 자신들의 편향된 논리에 따라 이용하거나 맹목적인 감정으로 상대에 대한 공격의 도구로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반드시 그 역사를 되풀이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실감하게 된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공멸과 풍요의 빈부 격차, 정치적 불신과 도덕적 해이, 진보와 보수에 갈등 속에서 가치의 전도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자국의 실리 위주의 정책을 수행하는 4대 강국에 둘러싸인 우리의 현실에서 안보와 경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아프가니스탄 붕괴로 인한 비참한 상황이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자기 스스로 보위할 의지나 능력이 없이 강대국에 의존하는 나라의 사상누각

적인 현상을 목도하는 것이다. 자기 국익에 반하는 강대국의 약속이나 협정, 의리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여실하게 보여 준다.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를 맞이하여 달라진 국가적 요구와 환경의 변화를 직시하고, 다른 나라의 흥망성쇠를 재음미하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난 역사를 반추하여 교훈을 얻고, 주체성 없이 남을 추종하고 감성적으로 부화뇌동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처한 현실을 냉철한 역사의식과 논리적 근거 및 합리의 바탕에서 살펴보면서 미래 지향적인 안목을 가져야 할 것이다.

특히 내년에는 나라의 운명이 달린 대선과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이 세 출발의 길목에서 진정한 국가의 안보와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치열한 성찰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기존의 낡은 사고와 안일주의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야 한다. 오직 물질의 풍요, 자기만의 안락 추구, 가치관의 전도를 극복하여야 한다. 올바른 인간적 삶의 가치, 도덕적 정체성의 확보, 물질에 우선하는 정신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민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투철한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개혁적인 사고와 실천의지를 가지고, 삶의 현장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려는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

社說

여수 경도 개발사업 국정감사로 의혹 밝혀야

미래에셋그룹이 추진 중인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당초 계획과 달리 투자가 아닌 투기로 전락하고 있다. 미래에셋의 경도 투기 의혹 제기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전남도와 여수시 등 지방의회에서 집중적으로 거론해 관심을 끌고 있다.

여수에 지역구를 둔 전남도의원들은 지난 6일부터 사흘간 열린 도정질의에서 여수 경도 조성 사업을 도마 위에 올리고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질타의 핵심은 미래에셋이 세계적인 해양관광지로 조성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돈이 되는 수익성 사업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투기로 의심받는 대표적인 시설은 레지던스(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이다. 미래에셋은 2019년부터 지금까지 세 차례나 토지 이용계획을 변경해 테마파크·기업연수원·오토캠핑장 면적은 아예 없애고 상업지역을 축소해 태워형 레지던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경도의 랜드마크는 호텔과 콘도인데 분양을 통해 수익을 챙길수 있는 29

층 100미터짜리 레지던스 11개 동을 먼저 짓겠다니 의혹을 사는 것은 당연하다.

미래에셋은 지역 여론이 악화되자 건축 허가 수장안을 내면서도 레지던스 객실을 13실만 줄여 1171실을 분양하겠다고 해 공분을 사고 있다. 오죽했으면 여수시의 회가 엇그제 임시회 때 경도 레지던스에 대한 국정감사와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는가.

개발 업체인 '와이케이디벨로먼트'(YKD)의 지분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전체 지분의 50%를 미래에셋컨설팅이 가지고 있는데 이 지분의 92%가량이 박원주 미래에셋 회장 친인척이어서 사실상 가족기업이란 지적이다.

투기로 의심받는 대표적인 시설은 레지던스(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이다. 미래에셋은 2019년부터 지금까지 세 차례나 토지 이용계획을 변경해 테마파크·기업연수원·오토캠핑장 면적은 아예 없애고 상업지역을 축소해 태워형 레지던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경도의 랜드마크는 호텔과 콘도인데 분양을 통해 수익을 챙길수 있는 29

'난민' 적극 지원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하다

'난민 인정' 소송을 제기한 외국인들이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생계난 속에서 홀로 외롭게 법정싸움을 하기 마련이다. 최근 아프가니스탄 난민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법·제도적 미비로 이들 외국인들이 이

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난민 인정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정치적 박해 등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껴 고국을 탈출한 외국인들이다. 한데 지난 2019년 기준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1차 심사를 받은 전국의 난민 신청자 9286명 중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는 0.4%(42명)에 불과했다. 그만큼 난민 지위를 얻는 게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외국인들이 구제를 호소하는 법정 여건도 우호적이지 않다. 광주일보 취재 결과, 엇그제 지법 행정 2단독 재판부가 진행한 24건의 재판의 경우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진행된 재판은 단 한 건뿐이었다. 급하게 고국을 떠나와 돈이 없는 데다 난민

신청자 신분으로 직장 구하기도 어려워 변호사 선임 비용을 마련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변호인 조력도 없이 난민 신청자 스스로 사진과 기사 및 판결문을 비롯해서 본국에서 어떤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는지 등의 자료를 모두 확보해 한국어로 입증해야 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게 현실이다.

특히 통역도 없이 법률적 용어가 가득한 판결문을 다시 한국어로 번역해 제출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사실 난민 인정 소송의 어려움은 광주 법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이제 난민 신청자 증가에 맞춰 사법적 인 틀을 마련하고 난민 문제를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무엇보다 난민 신청 외국인에게 충분히 주장하고 증명할 기회를 받아 진행된 재판은 단 한 건뿐이었다. 급하게 고국을 떠나와 돈이 없는 데다 난민

無等鼓

불을 다루는 과정에서 별 충돌도 없었는데 난 선수가 갑자기 쓰러져 고통을 호소한다. 심판은 경기를 중단시키고, 한참 지나 의료 요원들이 선수를 옮긴다. 표정을 보면 큰 부상을 당한 것 같은데 아니다. 들것에 실려 나갔다가도 금방 발정된 모습으로 들어온다.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예선 한국과 레바논의 경기 중 펼쳐진 이른바 '침대축구'의 한 장면이다.

침대축구는 시간을 끌기 위해 선수가 그라운드 위에 눕는 행위를 말한다. 흔히 전력이 약한 팀이 먼저

'침대축구'

공이 멈춘 상태에서 선수가 수들이 경기장에 놓기 어떻게 해서든 비기기를 위해 사용되는 전술(?)이기도 하다. 웃깃만 스쳐도 넘어지고, 발목을 잡거나 배를 움켜쥐면 채 억울한 표정을 짓는다. 한 명이 뒹굴며 심판의 시선을 끌면, 또 다른 선수가 엉뚱한 곳에서 아무 이유 없이 쓰러지기도 한다.

선수도 관중도 모두 화나게 하는 침대축구의 원조는 축구 중가 잉글랜드의 프로팀들이다. 원래 수비 전술로 사용됐지만 팬들의 분노로 그라운드에서 퇴출됐다. 한데 일부 동유럽 국가들이 이를 받아들였고, 지금은 중동 축구를 상징하는 단어가 됐다. 침

대축구가 만연하는 이유로는 중동의 '폐쇄된 축구 문화'를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대부분 자국 선수들의 해외 진출을 막으면서 세계 축구의 흐름과는 동떨어진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감정 표현을 아끼지 않고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그들 특유의 성향이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축구에서는 시간 끌기도 수비 전술의 일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이 그라운드에서 구르는 상태에서 수비에 중점을 두는 진정한 수비 축구와 달리, 침대축구는 공이 멈춘 상태에서 선수가 수들이 경기장에 놓기 때문에 전술이라 할 수는 없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분선 진출을 위해 앞으로 다섯 번의 중동 원정에 나서게 된다. 중동전 최대의 적은 무더위도 모래 폭풍도 아닌 침대축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불리할 땐 1초도 아깝다며 부지런히 뛰지만, 유리하거나 최소한 비길 수 있을 땐 그라운드 전체를 침대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다들 아는 사실이지만 침대축구 예방법이 딱 하나 있기는 하다. 그것은 빠른 시간 안에 선제골을 넣는 것이다.

/유재관 편집1부장 jkyou@

기고



김용하
전 광주시인협회 회장
전 광주국공립중등교장협의회장

몇 년 전 모 대학에서 교직 강의 중에 8월 29일이 무슨 날인 줄 아는 학생은 손을 들어 보라고 했다. 100여 명의 수강생 중에서 선택 손은 든 학생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였다. 당시는 위안부 문제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소녀상 건립 등을 둘러싸고 수구 친일이나 반일이나 정치적 공방도 심할 때였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들에 대한 공방의 열기는 높으면서도 정작 그러한 문제들의 단초가 되는 논거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었다. 지금도 주변의 상당수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면 그 일의 근원적 원인과 본질에 대해 깊이 상고해 보거나 인과관계를 살펴보니 않고, 노출된 현상만 놓고 갑론을박하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지난 8월 29일은 경술국치 111주년이 되는 날이다. 익히 아는 바와 같이 경술국치란 '경술년의 치욕스러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월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